

국내 상담심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현장업무내용에 대한 실태와 발전과제*

서 은 경	신 효 정	김 민 정	유 금 란	허 재 홍	조 효 진 [†]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아주대학교 부교수	아주대학교 조교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북대학교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국내 상담 관련 전공의 교육과정과 상담심리사들의 주요 업무 및 기대되는 역할을 조사하여 그들의 부합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국내 4년제 기준 심리상담 관련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학부(일반·사이버대학교) 164개, 대학원(일반·전문·특수대학원) 408개의 학과(전공)가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학부 및 대학원과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른 교과목 개설 양상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현재 심리상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상담내용 및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현장에서 일하는 학회원들의 주요 업무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해석, 행정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대인관계, 정신건강, 가족, 성격 관련 영역을 상담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상담심리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할로서는 대중교육·홍보, 대상별 심리상담 지원 강화,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여 활동 등 대중 인식 증진과 정책 마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상담심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및 제언하였다.

주요어 : 상담관련 전공, 교육과정, 현장 업무내용

* 본 연구는 2023년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중장기발전TF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분석 결과에는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중장기발전TFT에서 진행한 연구 자료 중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결과 발표 및 출간에 대해 2023년 동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2023년 11월 1일)을 받았음.

† 교신저자 : 조효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우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2 수정관 B725호, Tel: 02-970-7124, E-mail: hyojin@sungshin.ac.kr

한국 대학교육계에 ‘심리학’이 소개되고 서울대가 1946년에 최초로 심리학과를 정식 학과로 개설했다. 이후 1950년대 미국 교육사절단의 활동에 힘입어 ‘심리상담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 1960년대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카운슬러 연구협의회와 한국카운슬러협회가 창설되었으며(한국심리학회, 2000), 1973년에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최초로 상담심리전문가¹⁾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상담, 심리, 심리치료가 포함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4년제 일반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는 164 곳이며, 상담심리 관련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일반, 교육, 특수, 전문)은 40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이러한 ‘상담심리’ 전공학과의 증가는 상담 전문인력의 확장 및 정신건강과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6년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 상담심리 직무를 포함시키고 심리상담의 개념, 범위, 역할, 능력단위 등을 제시하였다(권수영 등, 2016). 그러나 심리상담 서비스 필요 수요의 확장과 상담심리전문가의 양적 팽창만큼 안전하고 유익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미온적이다. 왜냐하면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자격증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김인규, 장숙희, 2019), 교육과 수련내용이 상이한 ‘심리상담’을 포함한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이 3,300여 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이로 인해 상담 서

비스를 받고자 하는 일반 국민 내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2021)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안’을 제시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규제하고, 자격관리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다양한 상담 관련 학회와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모범 마련을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성현모, 이상민, 2022), 상담심리전문가를 가장 많이 양성하고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상담심리학회도 2023년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심리전문성 요건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위한 연구와 심리상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지식 역량과 심리상담 실무역량에 대한 표준적인 공통 교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과 관련된 여러 정체성의 다양한 학부, 석박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상담현장에 기반하여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나고은 등, 2021). 또한 김수임 등(202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는 전공과 상관없이 심리상담의 다학제적 성격을 반영한 프로그램 중심의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심의 상담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핵심 교과목과 수련과정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환경에 있는 여러 해외의 심리사 및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은 지식역량과 기술역량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1)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상담심리사’와 ‘상담심리전문가’로 사용하였으며, 상담심리사와 상담심리전문가가 상담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를 ‘심리상담’으로 사용하였음.

국상담심리학회 ‘교육과정 표준안 제작 TFT’에서는 이러한 여러 해외 국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담심리전문가의 핵심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과정 표준안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합하고 정리하여 제시하였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제시된 표준안에서는 상담심리 자격증 법제화를 이룬 나라들에서 상담심리전문가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을 우선적으로 지식역량과 기술역량으로 구분하고, 기술역량 하위에는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역량, 상담연구·개발 및 자문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역량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역량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대표적인 필수 교과목명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안은 해외 교육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현장에서의 업무를 적절히 반영한 실제적인 조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대

학교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해외의 자격증의 경우, 석사 이상의 기준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와 석사과정 이상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현황 분석 및 대학원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표준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또한 NCS가 제시한 능력단위들과 교육현황분석에 제시된 교과목들이 현재까지는 일관성 있게 매칭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제시된 능력단위를 획득할 수 있는 국내 상담교육과정의 표준안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양한 대학(원) 상담관련전공의 교육과정 현황 및 상담심리사의 실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과정 표준안 제작 TFT(한국상담심리학회, 2023)에서 제시한 표준안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1. 상담심리사 교육과정 표준안

핵심역량		필수 교과목명
지식역량		▶ 발달심리학(전생애 발달) ▶ 성격심리학 ▶ 생물심리학(생리심리학, 신경심리학, 뇌과학 등) ▶ 학습심리학(행동수정, 행동치료 등) ▶ 상담윤리와 법* <기타> 사회심리학, 감각과 지각, 인지심리학 등
기술역량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역량	▶ 상담심리학(상담이론과 실제 등; 기본 상담이론 3개 이상을 포함한 교과) ▶ 이상심리학(정신병리 등) ▶ 심리평가(심리검사를 포함한 심리평가를 다룬 교과) ▶ 집단상담 ▶ 상담 및 심리치료 기법(상담기법, 상담실습, 슈퍼비전 ¹⁾ * <기타> 임상심리학, 다문화상담, 위기개입 / 부부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노인상담, 진로상담, 학습상담, 성상담, 발달정신병리학* 등
	상담연구·개발 및 자문역량	▶ 연구방법론 ▶ 자문과 협력 ▶ 슈퍼비전 ²⁾ * <기타> 심리통계학, 심리검사법, 심리설계 / 조직심리학, 학교심리학, 심리교육*, 부모교육*, 심리자문* 등
	의사소통과 관계구축역량	▶ 대인관계 심리학(인간관계론) 등

▶ 필수교과목 / *심화 과정에서 개설하기를 제안함 / ¹⁾수퍼바이저로서 상담실습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으며 학습함 / ²⁾수퍼바이저로서 상담수련생 지도를 학습함

연구 1에서는 현재 심리상담 관련한 국내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과정 표준안 제작 TFT’가 제시한 법제화를 이룬 해외 교육과정의 공통분모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관리 위원회(한국상담심리학회, 2022) 및 기존 선행 연구(조남정 등, 2015; 최아롱, 2011; 최해림, 김영혜, 2006)에서 제시한 교과 영역 분류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국내 상담관련 전공 학부 및 대학원의 학과(전공) 교과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상담심리전문가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 기준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과 동시에 심리상담 자격증 법제화를 위한 자료로 효용성을 가지리라 생각된다. 한편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법제화를 이룬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한 이론 교육과 실무 수련 내용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현재 심리상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 2급 회원을 대상으로 상담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내용과 다루고 있는 상담내용 및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담심리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회원들의 현장 업무내용, 상담영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담심리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조사를 통해 현 교육과정과 현장실무의 연결성을 점검하고, 향후 상담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 보완 및 지원되어야 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 법

연구 1. 상담전공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 현황

본 연구 1에서는 2023년 기준 국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상담관련학과(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구성 및 빈도와 대학(원)별 혹은 전공 특성별 교과목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학과와 상담심리학과 혹은 상담심리 전공과 상담교육 전공뿐만 아니라, ‘심리’나 ‘상담’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다양한 학과들의 교과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3년 현재 국내 ‘상담’, ‘상담심리’ 혹은 ‘심리치료’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전공은 4년제 대학(원) 기준 570여 개에 달하며(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심리상담’을 포함한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또한 3,3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연구 대상

연구 1의 대상은 전국 소재지 4년제 기준의 일반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학부 과정의 개설 교과목과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이었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학과 및 전공은 학부는 164개, 대학원은 408개로 총 572개가 해당되었다. 또한 심리상담의 전반적 영역을 다루는 전공인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학과(전공)를 ‘기준 1’로 구분하고, 학과명에 ‘심리, 상담, 치료’ 등이 포함되지만 특수대상(아동, 군, 가족 등), 매체치료(미술, 재활, 음악 등), 두 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된 학과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상담 등), 종교 관련 학과(기독교상담, 명상치료 등)를 ‘기준 2’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기존에도 심리학이나 교육상담학과를 중심으로 교과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조남정 등, 2015; 최아롱, 2011; 최해림, 김영혜, 2006) 특수대상, 매체 및 종교 관련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를 포함한 조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최근 다

표 2. 연구대상

	구분	기준 1	기준 2	합계	
학부	일반대학교(4년제)	58	63	121	
	사이버대학교(4년제)	16	27	43	
대학원	일반대학원	77	42	119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80	30	110
		기타대학원	35	110	145
	전문대학원	7	27	34	
	합계	273	299	572	

주. 기준 1: 심리, 치료, 상담이 포함된 학과(전공) 중 기준 2에 해당하는 학과(전공)를 제외한 학과. 기준 2: 심리, 치료, 상담이 포함된 학과(전공) 중 특수대상(아동, 군, 가족 등), 매체치료(미술, 재활, 음악 등), 두 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된 학과(ex.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상담), 종교 관련 학과(기독교상담, 명상치료 등)

표 3. 연구대상 학과(전공)명

구분	영역	학과(전공)명
기준 1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며 기준 2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상담학과, 심리상담학과, 심리치료학과, 교육상담학과, 심리학전공, 심리상담치료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육심리및상담심리, 상담교육 등
	대상별 상담	아동발달심리학과, 아동심리상담학과,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복지학과, 가족치료학과, 청소년상담교육, 초등상담교육, 초등상담심리, 아동심리및상담, 다문화상담교육, 교수학습심리상담, 평생교육상담, 군상담심리학과 등
기준 2	매체 상담	음악치료과, 창의미술치료,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 문학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등
	융합 전공	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기독교가족상담,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아동예술심리치료, 임상미술치료, 영성·철학상담,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등
	종교 관련 전공	신학과, 성경적상담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명상치료학과, 명상심리상담,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등

양한 학과에서 상담전공이 생겨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기준 1과 기준 2를 구분하여 교과목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자료수집

연구 1의 자료 수집은 2023년 5월에서 6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조사된 교과과정 실태조사 사업보고서(한국상담심리학회, 2022)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2022년 자료는 기준 1에 해당하는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학과(전공)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기준 2에 해당하는 ‘심리, 상담, 치료’를 포함하면서 특수대상, 매체치료, 두 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된 학과, 종교 관련 학과 자료를 추가로 모집하였다. 먼저 해당되는 학과(전공)를 추출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상담’, ‘심리’, ‘치료’가 포함된 관련 학과 정보를 검색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원)의 학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 방법

교과목 분석들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한국상담심리학회, 2022)에서 제시한 교과 영역 분류기준표 및 기존 선행연구(조남정 등, 2015; 최아롱, 2011; 최해림, 김영혜, 200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에서 선정된 학과(전공)를 대학과 대학원으로 구분하고, 대학원은 일반, 특수,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기준 1과 기준 2로 구분한 뒤, 해당되는 학과(전공)에 대하여 수집된 교과목을 분류하였다. 교과목은 기본적으로 교과목명에 기초하여 진행하였으며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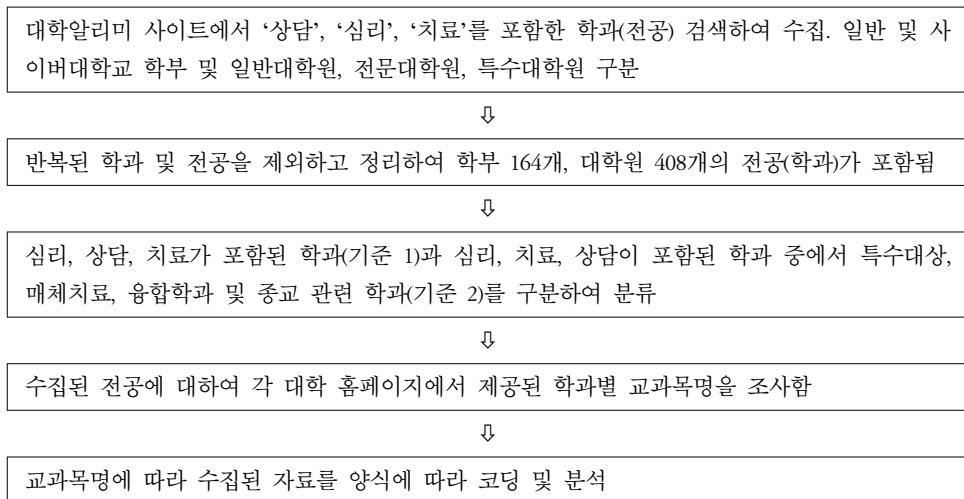


그림 1.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

이 서로 비슷하게 표기된 과목을 묶어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과목을 분류 및 유목화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위범주로 코딩하는 분석을 진행하면서 분류가 분명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의논 및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대학의 수합 및 분석은 상담전공 교수 2명,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1명이 직접 참여하여 전반적인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의 수합과정은 상담전공 석사과정생 5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상담전공 교수 1인이 감수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아롱(2011)의 연구에서는 영역을 5~6개, 조남정 등(2015)의 경우 24개로 분류한 데 반

해, 본 연구에서는 교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교과목명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개설 빈도를 확인하고자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다. 대분류 11개, 소분류 62개의 교과목을 기준으로 코딩하였으며 코딩한 자료 중 소분류한 교과목을 기준으로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개설된 전체 빈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2.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의 실무 및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표 4. 교과목 분류 범주

대분류	소분류
01.상담기초	01.사회심리학, 02.생리/생물심리학, 03.성격심리학, 04.인지심리학, 05.정서심리학, 06.지각심리학, 07.학습심리학, 08.동기심리학, 09.발달심리학, 10.건강심리학
02.개별상담접근	01.게슈탈트심리치료, 02.대상관계이론, 03.인간중심치료, 04.인지/인지행동치료, 05.정서중심치료, 06.정신분석치료, 07.행동치료
03.상담기본	01.상담이론/심리치료, 02.상담면접/기법, 03.상담윤리, 04.상담철학
04.상담실습	01.상담사례연구, 02.상담수퍼비전, 03.상담실습
05.임상,진단	01.임상심리학, 02.심리검사/심리측정, 03.심리평가/심리진단, 04.정신병리학/이상심리, 05.정신약물학
06.통계 및 연구 방법론	01.심리통계, 02.상담연구방법론, 03.심리측정 및 평가, 04.연구방법론, 05.질적연구방법론
07.특수상담 (기법,대상)	01.기업상담, 02.노인상담, 03.놀이치료, 04.다문화상담, 05.명상치료, 06.모래놀이치료, 07.미술치료, 08.사이버상담, 09.사이코드라마, 10.아동상담, 11.위기상담, 12.음악치료, 13.중독상담, 14.청소년상담, 15.특수아상담, 16.학교상담, 17.학습상담, 18.트라우마상담, 19.코칭심리학, 20.긍정심리학
08.집단상담	01.집단상담, 02.집단상담실습
09.진로상담	01.진로/직업상담
10.가족상담	01.가족상담, 02.부모상담, 03.부부상담
11.기타	01.상담정책 및 행정, 02.기타

연구대상

연구 2의 설문조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989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자가 소지한 자격증은 상담심리사(1급, 2급)가 응답자의 31.2%, 청소년상담사(1급, 2급, 또는 3급)가 응답자의 29.9%, 임상심리사(1급, 2급)가 16.0%였고, 응답자 중 57.6%가 심리학, 상담학/상담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석사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다. 이들은 사설 상담센터, 대학교 내 상담관련 기관, 공공기관 중 청소년 상담 및 복지기관, 초중등 교육기관에 속한 초중고 상담실, 국가기관(경찰, 교정시설, 군대 등), 기업체(일반 사기업 상담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학회원들의 현장 업무내용, 상담영역에 대해 다중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상담심리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된 역할과 학회에 대한 기대를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학회원들이 받은(혹은 받고 있는) 교육과 소지한 자격증으로 상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상담심리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기초분석을 위해 SPSS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주관식 답변에 대해서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의 3명의 전문가가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답변에 대한 요약 정리를 통해 의미가 유사한 것들을 묶어 범주를 추출하고 각 범주들의 영역에 맞게 내용을 분류하였다.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3명의 분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도출된 범주와 해당 영역의

내용을 반복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분석자에 포함되지 않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의 전문가 1명이 분석 결과를 감수하였고, 범주 추출 및 분류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정리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결 과

연구 1. 상담전공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 현황

학부 교육과정 조사 결과

국내 4년제 대학 기준 학과명에 ‘심리’, ‘상담’, ‘치료’ 등이 포함된 학과 및 전공 164개 전공에 대한 학부의 교과목을 조사하였으며, 일반대학교 121개, 사이버대학교 43개가 이에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도 일반대학교에서 ‘기준 1’에 부합하는 전공은 58개, ‘기준 2’에 부합하는 전공은 63개였으며, 사이버대학교에서 ‘기준 1’에 부합하는 전공은 16개, ‘기준 2’에 부합하는 전공은 27개였다. ‘기준 1’에 해당하는 심리, 치료, 상담이 포함된 국내 4년제 일반대학 학부 과정 58개 학과를 조사한 결과, 심리학과가 26개로 가장 많았고 상담심리학과가 19개로 뒤를 이었다. 과목별 개설순위가 높은 과목으로는 상담이론(100.0%), 발달심리학(94.8%), 성격심리학(94.8%), 정신병리/이상심리(89.7%), 학습심리학(82.8%)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사이버대학교 16개 학과의 경우, 상담이론(100.0%), 가족상담(93.8%), 발달심리학(87.5%), 임상심리학(87.5%), 청소년상담(87.5%) 교과순으로 87% 이상의 높은 비율로 개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설비율이 50%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난 과목은 일반대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교 학부 기준 상위 20개 개설과목과 비교해봤을 때, 일반대학교에서는 50% 이상 개설되었으나, 사이버대학교에서는 50%이하로 개설된 교과목은 상담실습(31.3%), 심리통계(25.0%), 인지심리학(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2’에 해당하는 일반대학교의 학부 과정 63개 학과에 대한 교과목 조사 결과 개설된 과목 순위로는 상담이론(82.5%), 정신병리/

이상심리(66.7%), 발달심리학(60.3%), 가족상담(57.1%), 집단상담(55.6%)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준 2’ 전공의 경우 ‘기준 1’에 비하여 개설 비율이 50%가 넘는 교과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50% 이상의 비율로 개설된 과목이 상담이론, 정신병리/이상심리, 발달심리학, 가족상담, 집단상담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준 2’에 해당하는 사이버대학교 27개 학과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과목별 개설순위로

표 5. ‘기준 1과 기준 2’의 일반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학부 교육과정 개설 비율 비교

과목명	기준 1		기준 2		과목명	기준 1		기준 2	
	일반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상담이론,심리치료	58/58 (100.0%)	16/16 (100.0%)	상담이론,심리치료	52/63 (82.5%)	17/27 (63.0%)				
발달심리학	55/58 (94.8%)	14/16 (87.5%)	정신병리/이상심리	42/63 (66.7%)	13/27 (48.1%)				
성격심리학	55/58 (94.8%)	12/16 (75.0%)	발달심리학	38/63 (60.3%)	15/27 (55.6%)				
정신병리/이상심리	52/58 (89.7%)	13/16 (81.3%)	가족상담	36/63 (57.1%)	8/27 (29.6%)				
학습심리학	48/58 (82.8%)	12/16 (75.0%)	집단상담	35/63 (55.6%)	13/27 (48.1%)				
심리검사	45/58 (77.6%)	9/16 (56.3%)	심리검사	29/63 (46.0%)	10/27 (37.0%)				
임상심리학	43/58 (74.1%)	14/16 (87.5%)	성격심리학	27/63 (42.9%)	12/27 (44.4%)				
집단상담	43/58 (74.1%)	13/16 (81.3%)	청소년상담	25/63 (39.7%)	5/27 (18.5%)				
심리통계	41/58 (70.7%)	4/16 (25.0%)	진로/직업상담	25/63 (39.7%)	4/27 (14.8%)				
사회심리학	40/58 (69.0%)	10/16 (62.5%)	학습심리학	22/63 (34.9%)	9/27 (33.3%)				
진로/직업상담	40/58 (69.0%)	10/16 (62.5%)	심리측정 및 평가	16/63 (25.4%)	7/27 (25.9%)				
가족상담	34/58 (58.6%)	15/16 (93.8%)	상담실습	14/63 (22.2%)	1/27 (3.7%)				
인지심리학	34/58 (58.6%)	3/16 (18.8%)	임상심리학	13/63 (20.6%)	7/27 (25.9%)				
상담실습	32/58 (55.2%)	5/16 (31.3%)	놀이치료	12/63 (19.0%)	6/27 (22.2%)				
생리/생물심리학	28/58 (48.3%)	2/16 (12.5%)	아동상담	12/63 (19.0%)	4/27 (14.8%)				
연구방법론	28/58 (48.3%)	7/16 (43.8%)	미술치료	11/63 (17.5%)	5/27 (18.5%)				
건강심리학	26/58 (44.8%)	5/16 (31.3%)	사회심리학	9/63 (14.3%)	8/27 (29.6%)				
청소년상담	23/58 (39.7%)	14/16 (87.5%)	심리통계	9/63 (14.3%)	6/27 (22.2%)				
정서심리학	18/58 (31.0%)	1/16 (6.3%)	연구방법론	9/63 (14.3%)	4/27 (14.8%)				
놀이치료	17/58 (23.3%)	9/16 (56.3%)	인지심리학	7/63 (11.1%)	3/27 (11.1%)				

는 상담이론(63.0%), 발달심리학(55.6%), 정신병리/이상심리(48.1%), 집단상담(48.1%), 성격심리학(4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 2’의 경우, 일반대학교와 사이버대학 모두에서 개설 비율이 50% 이상인 과목은 상담이론과 발달심리학 2과목에 해당했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상담이론 교과목 개설율은 63% 정도로 일반대학교 82.5%보다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 1에서 상담과목 개설율이 모두 100%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대학원 교육과정 조사 결과

국내 전국 소재지의 대학원에 대한 교과목 조사는 우선적으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였다.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 교육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였는데 교육대학원의 경우 대체로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거의 모든 학교가 매우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은 구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일반대학원 119개, 특수대학원 255개, 전문대학원 34개의 총 408개의 학과(전공)이 포함되었다.

일반대학원 중 ‘기준 1’에 해당하는 학과는 총 77개로 과목별 개설순위를 상위 20개까지 개설 비율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개설율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상담이론(94.8%), 심리검사(81.8%), 집단상담(72.7%), 연구방법론(67.3%), 상담실습(64.9%)이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으로 나타났으며, 11위까지의 과목 개설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육대

학원 ‘기준 1’에 해당하는 전공은 총 80개로 취합되었으며, 과목별 개설순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과목은 상담이론(96.3%), 심리검사(90.0%), 정신병리/이상심리(90.0%), 가족상담(87.5%), 성격심리학(87.5%)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기준 1’에 해당하는 전공은 35개로 조사되었으며, 과목별 개설비율은 상담이론(97.1%)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병리/이상심리(85.7%), 가족상담(82.9%), 집단상담(82.9%), 심리검사(80.0%) 과목이 뒤를 이었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기준 1’에 해당하는 전문대학원은 7개로 상위 개설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발달심리학(100.0%), 상담이론(85.7%), 성격심리학(8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 1’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모두 상담이론이 1순위 개설 교과목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심리검사, 정신병리/이상심리,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직업상담 교과목은 모든 대학원에서 50%이상의 개설율을 보였다. 반면, 연구방법론과 심리통계 교과는 일반대학원에 비해 다른 세 유형의 대학원에서 개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2’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은 전공은 총 42개로 조사되었으며, 개설교과목 순위는 상담이론(71.4%), 정신병리/이상심리(57.1%), 집단상담(47.6%), 심리검사(45.2%), 가족상담(4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설율이 50%가 넘는 과목은 상담이론, 정신병리/이상심리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의 경우 ‘기준 2’에 해당하는 30개의 전공 중에서 과목별 상위 개설비율을 보인 교과목은 상담이론(73.3%), 집단상담(53.5%), 심리검사(50.0%), 가족상담

표 6. '기준 1'에 해당하는 대학원들의 교육과정 개설 비교

과목명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기타 특수대학원			
상담이론	73/77	(94.8%)	77/80	(96.3%)	34/35	(97.1%)	6/7	(85.7%)
심리검사	62/77	(80.5%)	72/80	(90.0%)	28/35	(80.0%)	4/7	(57.1%)
집단상담	55/77	(71.4%)	70/80	(87.5%)	29/35	(82.9%)	4/7	(57.1%)
연구방법론	52/77	(67.3%)	39/80	(48.8%)	27/35	(77.1%)	4/7	(57.1%)
상담실습	50/77	(64.9%)	67/80	(83.8%)	16/35	(45.7%)	1/7	(14.3%)
진로/직업상담	49/77	(63.6%)	67/80	(83.8%)	20/35	(57.1%)	4/7	(57.1%)
가족상담	48/77	(62.3%)	70/80	(87.5%)	29/35	(82.9%)	1/7	(14.3%)
정신병리/이상심리	48/77	(62.3%)	72/80	(90.0%)	30/35	(85.7%)	6/7	(85.7%)
성격심리학	43/77	(55.8%)	70/80	(87.5%)	22/35	(62.9%)	6/7	(85.7%)
인지치료	43/77	(55.8%)	7/80	(8.8%)	18/35	(51.4%)	1/7	(14.3%)
발달심리학	41/77	(53.2%)	50/80	(62.5%)	25/35	(71.4%)	7/7	(100.0%)
심리통계	38/77	(49.4%)	16/80	(20.0%)	7/35	(20.0%)	2/7	(28.6%)
상담수퍼비전	33/77	(42.9%)	8/80	(10.0%)	16/35	(45.7%)	1/7	(14.3%)
청소년상담	29/77	(37.7%)	16/80	(20.0%)	21/35	(60.0%)	4/7	(57.1%)
질적연구방법론	28/77	(36.4%)	2/80	(2.5%)	2/35	(5.7%)	2/7	(28.6%)
상담사례연구	27/77	(35.1%)	60/80	(75.0%)	16/35	(45.7%)	0/7	(0.0%)
학습심리학	27/77	(35.1%)	52/80	(65.0%)	11/35	(31.4%)	3/7	(42.9%)
상담면접/기법	26/77	(33.8%)	12/80	(15.0%)	7/35	(20.0%)	2/7	(28.6%)
아동상담	26/77	(33.8%)	3/80	(3.8%)	14/35	(40.0%)	2/7	(28.6%)
중독상담	26/77	(33.8%)	4/80	(5.0%)	7/35	(20.0%)	2/7	(28.6%)

주. 일반대학원 기준, 교과목 개설율 상위순 정렬

(46.7%), 성격심리학(46.7%) 등의 순이었다. '기준 1'과 '기준 2'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인 과목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정신병리/이상심리 교과목은 개설율이 36.7%에 그쳐 차이가 있었다.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경우 '기준 2'에 해당하는 전공은 110개로 나타났으며, 과목별 개설순위가 높은

과목은 상담이론(68.2%), 정신병리/이상심리(60.0%), 심리검사(48.2%), 집단상담(44.5%), 상담실습(4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대학원 '기준 1'과 '기준 2'에서 동시에 과목 개설비율이 50% 이상인 과목은 상담이론, 정신병리/이상심리 두 과목이었고, 상위 개설 교과목명은 유사성이 있으나, 개설비율은 '기준

표 7. '기준 2'에 해당하는 대학원들의 교과목 개설 비교

과목명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기타 특수대학원			
상담이론	30/42	(71.4%)	22/30	(73.3%)	75/110	(68.2%)	13/27	(48.1%)
정신병리/이상심리	24/42	(57.1%)	11/30	(36.7%)	66/110	(60.0%)	9/27	(33.3%)
집단상담	20/42	(47.6%)	16/30	(53.3%)	49/110	(44.5%)	7/27	(25.9%)
심리검사	19/42	(45.2%)	15/30	(50.0%)	53/110	(48.2%)	7/27	(25.9%)
가족상담	18/42	(42.9%)	14/30	(46.7%)	44/110	(40.0%)	10/27	(37.0%)
상담실습	18/42	(42.9%)	11/30	(36.7%)	46/110	(41.8%)	5/27	(18.5%)
연구방법론	16/42	(38.1%)	9/30	(30.0%)	41/110	(37.3%)	8/27	(29.6%)
놀이치료	15/42	(35.7%)	3/30	(10.0%)	32/110	(29.1%)	4/27	(14.8%)
청소년상담	14/42	(33.3%)	2/30	(6.7%)	33/110	(30.0%)	8/27	(29.6%)
미술치료	12/42	(28.6%)	4/30	(13.3%)	33/110	(30.0%)	2/27	(7.4%)
발달심리학	12/42	(28.6%)	10/30	(33.3%)	45/110	(40.9%)	5/27	(18.5%)
성격심리학	11/42	(26.2%)	14/30	(46.7%)	22/110	(20.0%)	6/27	(22.2%)
아동상담	11/42	(26.2%)	2/30	(6.7%)	25/110	(22.7%)	8/27	(29.6%)
부모상담	10/42	(23.8%)	5/30	(16.7%)	25/110	(22.7%)	5/27	(18.5%)
심리측정/평가	10/42	(23.8%)	3/30	(10.0%)	13/110	(11.8%)	0/27	(0.0%)
질적연구방법	10/42	(23.8%)	3/30	(10.0%)	4/110	(3.6%)	2/27	(7.4%)
진로/직업상담	9/42	(21.4%)	13/30	(43.3%)	24/110	(21.8%)	4/27	(14.8%)
상담수퍼비전	7/42	(16.7%)	3/30	(10.0%)	11/110	(10.0%)	1/27	(3.7%)
인지치료	7/42	(16.7%)	1/30	(3.3%)	17/110	(15.5%)	1/27	(3.7%)
대상관계이론	6/42	(14.3%)	1/30	(3.3%)	10/110	(9.1%)	2/27	(7.4%)

주. 일반대학원 기준, 교과목 개설 비율 상위순 정렬

2'의 특수대학원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중에서 '기준 2'에 해당하는 전공은 총 27개로 확인되었다. 과목별 개설순위는 상담이론 (48.1%), 가족상담 (37.0%), 정신병리/이상심리(33.3%), 아동상담 (29.6%)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개설율이 50% 이상으로 집계된 과목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기준 2'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도 모두 상담이론이 1순위 개설 교과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그 개설율이 48.1%에 머물렀다. '기준 2'에 해당하는 모든 대학원은 '기준 1'에 비해 모든 교과목들의 개

설율이 상대적으로 20% 이상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검사, 집단상담 교과목도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에서는 50%보다 낮은 개설율을 보였다. 단, 전반적인 개설율이 낮은 만큼 대학원들이 운영 중인 교과목 수는 ‘기준 1’에서보다 ‘기준 2’에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2.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의 실무 및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상담심리사의 현장 주요 업무내용

현재 소속된 상담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담업무 내용에 대한 학회원들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업무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은 개인상담(97.7%), 심리검사 및 평가(70.3%), 홍보, 예산처리, 물품관리,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상담 행정업무(53.5%)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0.3%)과 집단상담 (39.7%)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가족 및 부부상담(21.8%)과 수퍼비전 및 상담자 교육(21.8%) 순서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무로는 자문(11.8%), 심리 및 정신건강 대중교육 및 강연(11.3%), 저술 및 연구활동(8.5%), 대학강의(8.3%), 갈등조정 (6.0%) 등이었다.

상담 분야의 주요 업무 내용 중 개인상담과

표 8. 상담심리사의 현장에서 주요 업무 내용

(N=989)

업무 내용	응답	
	N	%
개인상담	946	95.7
심리검사 및 평가	695	70.3
상담행정(홍보, 예산처리, 물품관리, 보고서 작성 등)	529	53.5
다양한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99	40.3
집단상담	393	39.7
가족 및 부부상담	216	21.8
수퍼비전 및 상담자 교육	216	21.8
자문(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소속 위원회 등)	117	11.8
심리 및 정신건강 대중교육 및 강연	112	11.3
저술 및 연구 활동	84	8.5
대학강의	82	8.3
기타(법률지원, 기타 행정, 인권교육, 돌봄, 교육사업 등)	65	6.6
갈등조정	59	6.0

주. 다중응답

심리검사 및 평가가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 행정업무와 다양한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50% 이상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업무로는 내담자 복지자원 연계, 유관 기관 협력사업, 수사법률지원, 인권교육, 돌봄 업무, 교육사업, 팀 업무지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회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는 상담 업무 내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 순서로 3순위까지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그 결과 1순위 선택으로는 개인상담, 상담행정, 프로그램 기획, 심리검사 순서로 나타났고, 2순위 선택으로는 심리검사, 상담행정, 프로그램 기획, 집단상담, 개인상담, 가족부부상담, 슈퍼비전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 3순위 선택으로 심리검사, 집단상담, 상담행정, 프로그램 기획, 개인상담, 가족부부상담, 슈퍼비전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순위 상담업무에서는 개인상담이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중요한 업무로 나타났으며, 2순위와 3순위 선택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난 심리검사 또한 중요한 업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상담행정과 프로그램 기획이 모든 선택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상담 분야 업무에 있어서 상담 프로그램의 기획과 관리, 상담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2순위와 3순위 선택에서 집단상담, 가족부부상담, 슈퍼비전, 교육강연과 갈등조정 등의 항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응답자들의 업무 내용에는 다양한 상담 형태와 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심리사의 주요 상담내용

현재 근무하는 상담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상담내용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대인관계(86.3%), 정신건강(85.7%), 가족관계(73.7%), 성격(67.1%)과 심리검사 해석(45.3%) 순서로 나타났다. 그 밖에 상담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학업, 진로, 생활관리 및 중독문제, 트라우마, 성관련 문제, 갈등조정 및 중재 등이 3%~4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진로 상담내용을 따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각각이 상위 순위에 들지는 못했으나, 학회원들이 근무하는 주요한 상담 기관이 대학교 내 상담 기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기관(청소년 상담복지기관, 초중등 상담실)임을 고려할 때 ‘학업과 진로상담 내용’을 합치면 74.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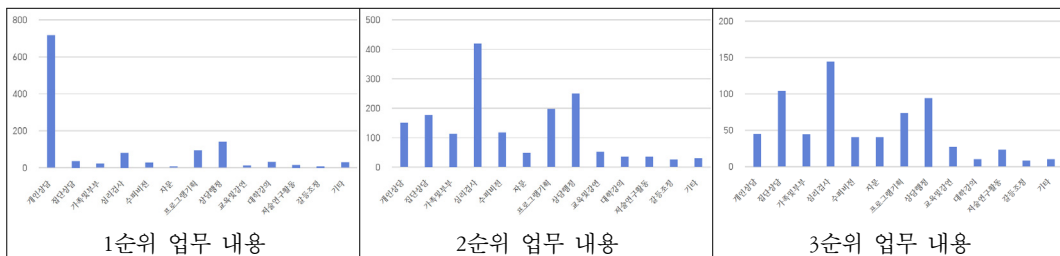


그림 2. 상담심리사 업무 내용

표 9. 상담심리사의 현장에서 주요 상담내용 (N=989)

상담내용	응답	
	N	%
대인관계(친구관계, 동료관계, 선후배 관계, 이성관계 등)	854	86.3
정신건강(우울, 불안, 충동성 및 부주의, 강박, 섭식, 자살 자해 등)	848	85.7
가족관계(부모-자녀, 부부 갈등, 형제자매 관계, 가정폭력 등)	729	73.7
성격(소극/과민, 완벽주의, 의존적/우유부단, 자기중심, 충동/공격 등)	664	67.1
심리검사 해석(지능, 성격, 진로, 적성 등)	448	45.3
학업(시험불안, 학업스트레스, 성적부진, 학업중단, 학업동기 및 흥미부족, 시간관리 등)	400	40.4
진로 (진로이해, 진로탐색, 진로결정 등)	336	34.0
생활관리 및 중독문제(가출, 학교폭력, 등교거부, 흡연, 알콜, 마약, 도박 등)	268	27.1
트라우마(재난 및 애도 등)	202	20.4
성 관련 문제(임신, 성 정체성, 성폭력 등)	113	11.4
단체, 조직, 사회 내/간 갈등 조정 및 중재	92	9.3
기타(놀이치료, 노인, 신경심리치료 등)	36	3.6

주.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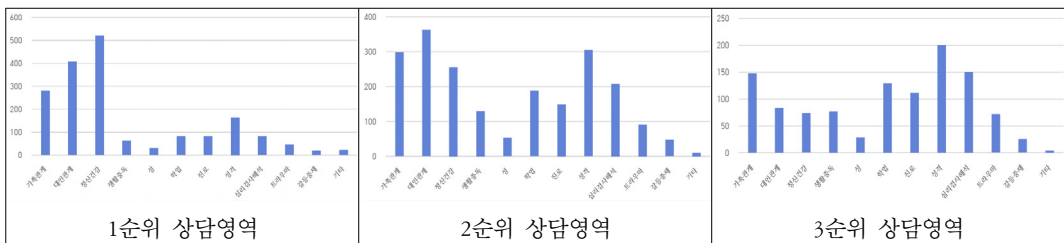


그림 3. 상담심리사 상담영역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상담내용으로는 상담 대상이 특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놀이치료, 노인, 신경심리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상담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결과이다. 1순위 선택으로는 정신건강, 대인관계, 가족문제, 성격, 학업과 진로, 심리검사, 트라우마

우마로 나타났다. 2순위 선택으로는 대인관계, 성격, 가족관계, 정신건강, 심리검사, 학업과 진로, 트라우마, 갈등 중재였고, 3순위 선택으로는 성격, 심리검사, 가족관계, 학업진로, 정신건강, 생활관리 및 중독, 트라우마, 갈등 중재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주요 상담내용 1순위 선택은 ‘정신건강과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고, 2순위

선택은 ‘대인관계와 성격’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3순위 선택은 ‘성격과 심리검사’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한편 ‘가족관계와 학업, 진로’에 대한 상담은 1순위에서 3순위 선택 모두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트라우마와 갈등중재’에 대한 상담은 2순위, 3순위 선택에서 모두 주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응답한 상담심리전문가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상담내용은 ‘정신건강, 대인관계, 성격, 심리검사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가족관계와 학업, 진로 영역의 상담과 트라우마와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도 상대적 비중은 적었지만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담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현장에서 상담심리사의 주요 역할에 대한 인식

본 설문조사에서는 학회원들이 생각하는 ‘상담심리사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표 10은 상담심리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섯 가지로 유목화한 것이다. 첫째는 심리상담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 교육·홍보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 전반의 심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셋째는 특수문제 및 대상별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및 연계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으며, 넷째는 소수자·소외된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여 활동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상담심리사의 사회적 지위 강화와 정책적 참여 의견을 제공하였다.

표 10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

회원들은 첫째로 심리상담에 대한 대중교육을 통해 심리상담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나타냈다. 특히 상담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자격 없는 상담자가 상담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오해 등에 대해 올바른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체계적인 교육과 강도 높은 수련 과정에 의해 취득되는 신뢰로운 자격임을 알려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 심리상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홍보(ex. 미디어 활동 등), 자격 있는 상담심리사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심리사의 고유한 자질과 역할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 전반의 심리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인간 발달과정에 대한 심리교육(ex.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 연령층 대상 심리교육,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예비) 부모교육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 자살·위기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코로나 상황 종료에 따른 대인관계 기술훈련(ex. 의사소통 교육)과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마약 예방, 중독 예방 등 사회문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셋째는 특수문제 및 대상별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및 연계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견에서는 다양한 특수문제, 예를 들어 폭력상담, 다문화상담,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 스트레스 및 중독 상담, 영적 성장 관련 상담, 정신병리 증상과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에 대한 개입을 언급하였고, 대상별 상담으로는 부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치매환자 및 가족상담, 독거노인의 외로움

표 10. 상담심리사의 주요 역할에 대한 인식

1. 심리상담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 교육·홍보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홍보 - 전문성을 갖춘 상담심리사의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홍보 - 체계적 교육과 수련을 받은 상담심리사의 전문적 자질과 역할에 대한 홍보
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 전반의 심리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발달과정에 대한 심리교육(ex.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 연령층 대상 심리교육,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예비) 부모교육 등) - 사회적 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 생명 존중 및 위기 예방 교육 - 코로나 상황 종료에 따른 대인관계 기술훈련(ex. 의사소통 교육) - 사회문제 예방 교육: 마약 예방, 중독 예방
3. 특수문제 및 대상별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및 연계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특수문제 및 대상별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문제 상담: 폭력상담, 다문화 상담,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 스트레스 및 중독상담, 영적 성장 관련 상담, 정신병리 증상과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 교정(교도소) 상담 등 - 대상별 상담: 부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치매환자 및 가족상담, 독거노인 상담, 감정노동자 상담, 탈북자 상담, 자립준비청소년 상담, 연예인 상담, 1인 가구 상담, 군인 상담 등 -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연계 네트워크·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영역과 다른 전문 분야와의 협력과 연계 - 지역사회 마음건강 관리와 위기 상담자 지역 연계체계 구축 - 정신건강 관련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망 구축
4.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소외된 계층)의 권익 증진과 보호 및 사회정의 상담 - 찾아가는 상담, 방문 상담, 예방을 위한 상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심리치료 자원봉사 영역 확대 -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 온라인 상담 등 활성화하여 상담 받을 기회 제공 - 지역사회와 연계,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대
5. 상담심리사의 사회적 지위 강화와 정책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분야의 사회적 지위 강화 활동(ex: 상담심리사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체계와 협회 마련, 법제화를 통한 심리상담의 국가의료보험 적용) - 상담심리사의 활동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지체계 마련 - 상담심리사의 권리 및 처우 개선 활동

과 불안 문제, 탈북자 상담, 자립준비청소년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상담, 연예인 상담, 1인 가구 상담 등에 대한 와 더불어,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연계 네트

워킹·안전망 구축도 중요하게 보았으며, 상담영역과 다른 전문 분야와의 협력과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마음건강 관리와 위기 상담심리전문가 지역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로 찾아가는 상담, 방문 상담, 예방을 위한 상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심리치료 자원봉사 영역 확대,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 온라인 상담 등 활성화하여 상담 받을 기회의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확산 및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 및 봉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로 심리상담 분야의 사회적 지위 강화 활동, 상담심리사의 활동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지체계 마련, 상담심리사의 권리 및 처우 개선 활동, 심리상담의 정책적 참여와 법제화 등을 제시하면서, 상담심리사의 사회적 지위 강화와 정책적 참여를 통해 상담 서비스의 효과적인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본 학회 상담심리사들은 전문가로서 상담심리사 자격이 체계적인 교육과 강도 높은 수련 과정에 의해 취득되는 신뢰로운 자격임을 알리며,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특수한 문제 개입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다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 체계 안에서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정신건강 관리와 사회적 정의 실천을 통해 전문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과 관련된 여러 정체성의 다양한 학부, 석박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상담 현장에 기반하여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인규, 2018; 나고은 등, 2021). 우리나라의 상담심리사들은 석사 이상의 상담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상담관련 학회에 소속되어 수련을 받으며 상담자로서 역량을 쌓아가는 체계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다. 자격 취득 후에는 다양한 현장에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학부 및 대학원 상담심리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 상담자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실태조사로 자격을 취득한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들에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및 역할에 대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관련 대학 교육 기관들의 교육과정과 상담자의 현장 업무 및 상담내용의 실태조사를 통해 첫째, 우리나라의 상담심리 관련 교육과정 체계 속에서 훈련받은 상담자들의 교과목과 현장적 실재를 파악하고, 둘째, 이를 상담심리사의 교육과정 표준안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교육과정 표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1

먼저 연구 1에서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상

담 전공의 교육과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과정의 경우, 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과 같은 기초과목의 비중은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일반대학원의 경우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정도의 기초과목만이 주요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며 특수 및 전문대학원에서는 기초과목이 거의 개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과정 표준안 제작 TFT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표준안과 비교하여 볼 때(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국내 대학원 과정에서는 ‘지식역량’에 해당하는 기초과목의 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상담사격을 국가 자격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안된 핵심역량으로서의 기초는 생물-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인간 이해를 위한 지식, 인간의 전생애 발달에 대한 지식,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지식 등을 습득하여 실무 수행에 기초가 되는 지식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돕는 교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대다수 대학원에서도 비동일계 학생들에게 기초 교과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선수 과목으로서 이를 석사과정 중에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와의 연계성 없이 대학원 학위취득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의 경우 기초역량에 해당하는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기초부터 심화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연결성 및 위계성을 가지고 교과목의 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와 같은 실습 과목은 대학원에 비하여 학부에서 더 낮은 비

율로 개설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 현재 국내의 경우, 학부 졸업만으로 상담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담사례 및 실습과 같은 과목 개설의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부과정을 조사한 선행연구(조남정 등, 2015; 조운진 등, 2010)에서도 실습과목 및 절대적인 실습시간의 편성이 매우 부족하며, 실습과 이론이 연계되는 측면에서도 위계적 연결성이 떨어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학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론과목에 비하여 상담실습과 같은 실무 관련 교과목은 부족한 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과정 표준안 제작 TFT(한국상담심리학회, 2023)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표준안에서도 심리평가 및 상담개입 역량으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 기법(상담기법, 상담실습, 수퍼비전)의 과목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상담자 양성모델의 근거로서 인식되어온 과학자-실무자 모델에서 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실무자로서의 교육과정에서의 상담실습은 시간이나 비중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석사 졸업생들 또한 개별적으로 상담실습 시간을 채워 수련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양난미 등, 2023; 조남정 등, 2015; 최아롱, 2011). 이에 체계적이고 검증된 교육과정의 확립을 통하여, 상담실무자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 교과과정에서 특히 일반대학교 학부나 대학원이 아닌 경우, 기준 2에 해당하는 전공일 경우,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교과과정은 너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관된 교과과정 개설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학과에 따라 각 기준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과목 수와 구성 비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최아롱, 2011)와도 유사한 결과로, 대학원의 경우 ‘기준 1’의 전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과목 10과목의 경우는 대체로 50% 이상의 비율로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준 2’ 전공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기타 대학원 모두 50%가 넘게 개설된 과목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50%가 넘는 개설율을 가진 교과가 3과목(상담이론, 집단상담, 심리검사) 정도였으며, 특수대학원의 경우도 50%가 넘는 교과가 2과목(상담이론, 이상심리),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한 과목도 없었다. 이는 ‘기준 2’의 전공이 상담 관련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하고 특정 영역을 다루는 과목들로 편성되어 있기에 공통된 상담과목을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1’의 전공에 비해 공통된 기초 교과목의 편성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상담이론과 같은 수업이 개설되지 않은 ‘상담’관련 학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학과나 특수대상이나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공에서 개설되는 전공의 경우 특수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기초 교과 및 상담이론 수업 등이 전반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문적인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상담의 기초가 되는 교과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방법론, 심리통계와 같은 과목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과목들이 ‘기준 1’전공에 비하여 ‘기준 2’전공에서 더 낮은 비율로 개설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학과(전공)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수업내용과 양상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과정 표준안 제작 TFI(한국상담심리학회, 2023)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표준안에서도 상담연구·개발 및 자문 역량으로서 연구방법론을 주요 교과로서 제안하고 있으며, 근거 기반 상담자로서의 성장에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준 2의 전공에서의 연구방법론 과목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상담인력 양성과 관련한 국가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진 이 시점에서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넷째,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과정 표준안 제작 TFI(한국상담심리학회, 2023)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표준안과 비교해봤을 때, 다문화상담, 상담윤리 및 정책, 자문상담 등과 같은 과목은 국내에서 매우 적은 비율로 개설되거나 거의 개설되지 않았다. 교육과정에 다문화상담과 다양한 인구군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다양한 집단, 지역사회들과의 소통, 조율, 자문을 포함하여 상담심리사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상담 윤리과목 개설의 추가 개설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바(조남정 등, 2015; 최아롱, 2011), 상담윤리와 법, 정책을 다루는 교과목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상담심리사에게는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고 법률적으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의 의무

가 있으며, 내담자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숙지해야 하는 여러 법률적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교과과정에 이러한 교과목을 증설 및 확보하여 상담심리사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본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주요 업무내용과 상담내용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학회원들이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특수대학원, 상담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상담자 교육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장의 주요 업무내용을 뒷받침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체계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업무 내용으로 개인상담, 심리검사 해석, 행정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상담심리사가 전문적인 심리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역량과 교육 기획 능력이 요구되는 측면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상담 외의 상담 업무로는 집단상담, 가족 및 부부상담, 갈등조정 등이 주요 업무로 차지하였고, 그 밖에 상담자 교육 및 강의, 자문, 연구활동 등이 있었다. 이는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 기법, 평가 도구 활용 능력 등 필수적 지식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반영이 충실해야 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상담심리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필요 핵심역량(지식

역량, 기술역량)이 교육과정 안에서 습득되고 상담현장의 실천과 연결되도록 해야한다는 교육과정 표준안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이러한 결과를 연구 1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때, ‘기준 1’과 ‘기준 2’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기초과목의 개설에서 차이가 크지만 이들이 상담현장에 나와서는 결국 같은 내용의 실무적인 업무 내용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재 학부과정에서는 실습과목이 거의 부재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도 실습과 실무 관련 교과목이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자들이 인증되거나 표준화된 수련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반영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상담자 양성과 관련된 대학 프로그램 및 수련 시스템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상담자 교육과 강연 및 강의, 자문, 연구활동 등은 다소 적은 비율의 업무내용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사회 전반의 심리상담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때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역량이다. 더불어 상담심리전문가에게 자문활동은 해외에서는 주요한 업무로 소개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자문과 관련된 교육이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반영을 숙고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IAAP와 IUPsyS (2016)의 심리학 역량 프로젝트에서 나온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선언’을 보면 ‘자문 및 교육’ 역량으로서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자문, 정부 및 기관에 대한 자문 등을 주요 자문역량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개

발 및 평가' 역량에서는 인간 행동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 모델 및 방법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일 등을 주요 업무로 선언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국내 회원들을 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이 비중 있는 업무영역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상담심리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심리사의 주요 업무내용은 지식역량과 기술역량과 관련된 교육과정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기술역량과 관련하여 자문역량과 상담 행정이나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교육 또한 상당히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학회원들의 주요 상담내용은 대인관계, 정신건강, 가족, 성격 관련 내용들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과 대인관계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대중은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유연한 인간관계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 상담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학업, 진로, 생활 관리 및 중독 문제, 트라우마, 성 관련 문제, 갈등조정 및 중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담내용은 비유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사회에서 상담심리사가 다루어야 할 주요한 문제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특히 중독, 트라우마, 성 관련 문제는 복잡해지는 사회에 대응을 위한 특화된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상담 대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과 민감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상담심리사 교육과정 표준안(한국상담심리

학회, 2023)을 기초하여 현재 상담 관련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전통적 상담 영역에 대한 지식 및 기술역량 교육의 필요는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독, 트라우마, 성, 다양성 관련 영역의 미시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이거나, 상담업무에서 중요하지만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부 교육과정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독, 재난 및 트라우마, 성 관련된 사회적 사건 사고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입을 위해 상담심리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술역량에서 특수 문제의 상담역량을 강화시키는 대안이나 혹은 해외 주요 국가의 상담자 교육과정에서 보수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노은빈 등, 2022),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상담전문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학회원들이 제시한 우리 사회에서 상담심리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상담심리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 교육·홍보가 필요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 전반의 심리교육 활성화, 특수문제 및 대상별 상담심리 지원 강화 및 연계 안전망 구축, 소수자·소외된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여 활동, 상담심리사와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중 인식 증진과 정책 마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상담심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여 더 이상 비전문가의 상담활동으로 발생하는 상담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폐단을 종식시키고, 상담에 대한 대중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들에 대처하는 상담심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참여 및 기여에 대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상담심리사가 일반 대중에 대한 예방 및 중재적 상담과 사회정의와 옹호에 대한 헌신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정 표준안에서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지식역량과 기술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 제안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향후 업무 내용으로 사회정의와 옹호에 대한 역할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러한 부분의 교육이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심리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표준안을 기반으로 한 상담심리사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 논의

우리나라에서 상담심리사나 상담심리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학부, 석·박사 프로그램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양한 상담관련 학회에서 수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체계로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 이러한 다학제적 교육과정을 통해 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상황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핵심교과목과 수련과정에 대해 합의하고, 우리나라 상담현장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해외 국

가들에서 제시한 심리사 및 상담전문가의 교육과정 표준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및 상담현장의 업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을 논의하였다.

두 가지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현장을 반영한 표준화된 교과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기초 교과부터 전문적인 교과목 및 실습까지 위계적으로 이수 될 수 있도록 하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유기적 연계, 필수교과 지정을 통한 기초역량의 강화, 전문적 실습체계의 확립 등 표준화된 전문적 교육과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대학원 과정에서 상담 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운영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NCS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되므로 필수교과를 포함한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제안 및 운영이 향후 상담자 양성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NCS는 상담심리사의 현장 실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능력단위로 범주화하고, 이들에게 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상담개입’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AAP와 IUPsyS(2016)의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 선언 기준을 따라 핵심역량을 지식역량과 기술역량으로 체계화하고 기술역량에서 상담개입역량 이외의 연구 및 자문역량과 관계구축역량 부분도 확장 보완하는게 필요하다 보여진다. 만약 앞으로 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NCS를 고려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체계화해나가게 된다면 현재 NCS 구성에서 보완되어야 할 특수문제와 관련된 정신건강, 중독,

재활, 학교상담 등의 교육과정이나 상담 윤리와 다양성, 사회정의와 관련된 학습 내용들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상담 윤리와 법, 정책을 다루는 과목 및 다문화상담 등 변화하는 현장에 요구되는 상담심리사로서의 역량에 걸맞은 교육과정의 제공 및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상담심리사들이 다양한 대상, 영역, 업무를 진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제화 이슈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정책을 다루는 교과목은 거의 부재하여 이를 다룰 수 있는 상담자가 양성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상담심리사의 현장 업무에서 일정 부분 자문 등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함양은 더 필수적 과업이 될 것이다. 해외의 경우, 법, 윤리, 정책, 자문과 관련된 과목들이 상담자 양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전문적인 의사소통 역량과 자문역량을 갖춘 상담자 육성 및 전문성 확보는 향후 상담자의 필수적인 발달과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담심리사와 상담전문가가 되는 교육과정이 다학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담전문가의 핵심역량(지식역량, 기술역량)은 공통적으로 충분히 교육과정 안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현재 NCS에서는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 교육현황 자료 분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가능하려면 능력단위의 범주화 등을 통하여 기술 및 지식 영역 능

력이 골고루 함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능력단위 및 학습모듈에서 실제 대학원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수교과목 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학습모듈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 과정에서의 해당 교과목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지식함양을 위한 노력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역량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누락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교육과정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향후에는 다양한 채널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학제간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NCS에서 상담(중분류)은 심리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주요 능력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대분류에서는 사회복지 및 종교의 하위분야로 규정하고 있어 상담심리 종사자를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가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정리하고 제시한 제언들이 상담심리 법제화를 위한 교육과정 표준안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 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11-21.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30(3), 475-493.
- 김인규, 장숙희 (2019). 국내 상담관련 민간 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17(2), 43-61.
-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 화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 (LPC)와 인 증프로그램 (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 노은빈, 김현진, 최기홍 (2022).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 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 *한국심리학회 지: 일반*, 41(3), 243-255.
- 보건복지부 (2021).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 성현모, 이상민 (2022).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23(3), 19-38.
- 양난미, 하재필, 성현모, 이상민 (2023). 심리상 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인식조 사: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비교를 중 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4), 1595-1619.
-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2015). 학부 상담학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연구. *상담학연구*, 16 (4), 301-319.
- 조윤진, 유성경, 박소현, 윤민지, 장운진 (2010). 상담석사과정에 대한 석사생들의 교육 경험 및 만족도 분석. *인간이해*, 31(2), 103-122.
- 최아롱 (2011). *한국의 상담자 전문교육과정의 적합성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 72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검색.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 *국내상담심리관련 교과과정 현황조사 결과 자격관리위원회 사업보고서*.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3). *상담심리사 교과과 정 표준안 제작 TFT 결과보고서*. 한국상 담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2000). *한국심리학회 요람*. 한국 심리학회.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민간자격현황*. <http://www.pqi.or.kr>에서 검색.
- IAAP & IUPsyS. (2016).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core competences in professional psychology*. <https://iaapsy.org/policies-initiatives/ipcp-documents/>

원 고 접 수 일 : 2024. 01. 15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25
 게재 결정 일 : 2024. 01. 29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Education Curriculums and Field Work of Counseling Psychologists in South Korea

Eunkyung Seo

Myongji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Hyojung Shin

Ajo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Minjeong Kim

Ajo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Jaehong He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yojin Cho

Sungshin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alignment between the education curriculums of counseling-related majors and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and expected roles of counseling psychologists in Korea. Research 1 investigated current undergraduate and graduate curriculums 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included 164 undergraduate and 408 graduate major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with variations in ratios and patterns among majors. Research 2 was conducted on members of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o examine their main tasks, counseling content, and roles in the counseling field. Members engaged in psychological counseling, psychological testing, program planning, predominantly providing counseling in area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ntal health, family, and personality. The roles expected of counseling psychologists extended to promoting public awareness, participating in policy development, enhanc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and contributing to social activities. The implications and significance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ing-related major, curriculums, field work of Counseling Psychologists